

신·재생 에너지 콜로키움 11월18일 대구 개최

대구경북연구원은 11월18일 오후 4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<대구경북 신·재생 에너지 산업화 전략 마련>에 관한 제143차 대경콜로키움을 개최한다.

콜로키움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,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신·재생 에너지의 산업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콜로키움에서는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참여해 발제하고 이회성 UN IPCC(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) 부의장(계명대 교수), 정종식 포스텍 신·재생 에너지연구소장이 토론을 벌인다.

대구경북연구원 관계자는 “대구·경북지역에는 신·재생 에너지기업이 많고 관련산업 기반이 발달해 있다”며 “콜로키움은 지역의 선도산업으로 선정된 그린에너지산업의 산업화 전략과 함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<화학저널 2008/11/17>